

2017년 3/4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조사

【 요 약 】

☐ 2017년 3/4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 3/4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85'를 기록하여 부진 지속 전망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의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각종 세일과 프로모션, 판촉 강화 등 매출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확대, 새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수출의 점진적 회복 등이 휴가철과 맞물려 부진세는 지난 2/4분기 대비 다소 완화 될 것으로 전망
- 지역의 주력 업종이 신규수주를 바탕으로 업황을 회복하기 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드보복 조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장마와 무더위에 따른 내방 고객 감소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어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 업태별 전망

- 백화점(65)은 여름 정기 세일 돌입과 편의시설 유치를 통한 내방고객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소비 감소와 주력 상품의 객단가가 낮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부진 전망
- 대형할인마트(89)는 휴가철 나들이로 인해 음식료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잡화 및 생활용품 등에서 판매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슈퍼마켓(95)은 외식이 줄고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식자재 구매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육류와 계절과일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 매출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
- 편의점(92)은 증정행사와 월별 상시 프로모션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름철 야간 내방 고객 증가, 수입맥주와 도시락등 PB상품의 판매확대로 부진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경영지표 전망

- 부진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내방 고객수 감소, 객단가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매출 회복이 불투명 할 것으로 보임, 다만 매출확대를 위한 업태별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

지표	매출액	고객수	객단가	총비용	판촉비용	할인행사	광고확대	판촉강화
지수	89	89	85	116	105	106	105	105

☐ 실적요인 및 경영애로요인

- 3/4분기 예상되는 실적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이 45.2%로 가장 높음
- 3/4분기 예상되는 경영애로요인으로는 '수익성 하락'이 49.8%로 가장 높음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조사 결과	2
1. 경기전망	2
2. 업태별 전망	3
3. 경영지표 전망	4
4. 실적요인	5
5. 경영애로요인	6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지역 소매유통업체의 경기상황 및 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소매유통업체의 경영활동 계획 및 경제운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2. 조사방법 및 대상

- 조사방법 : 대한상의 조사(전화/팩스) 후 집계 파일 수령
- 조사대상 : 부산지역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 191개체
(백화점 6개체, 대형할인마트 35개체, 슈퍼마켓 70개체, 편의점 70개체)

3. 조사기간

- 대한상의 조사 및 지역별 데이터 정리 : 2017년 5월 25일 ~ 6월 22일
- 부산지역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17년 7월 1일 ~ 7월 14일

4. 조사지표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 Retail Business Survey Index)

-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체감경기를 조사,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지수(100)를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

$$\text{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 \frac{\text{호전(증가)표시 업체 수} - \text{악화(감소)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기준지수=100, 지수 100 초과: 경기호전, 지수 100 미만: 경기악화

5. 유의사항

- 각각의 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했으며,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어 그 합이 '100.0%'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Ⅱ.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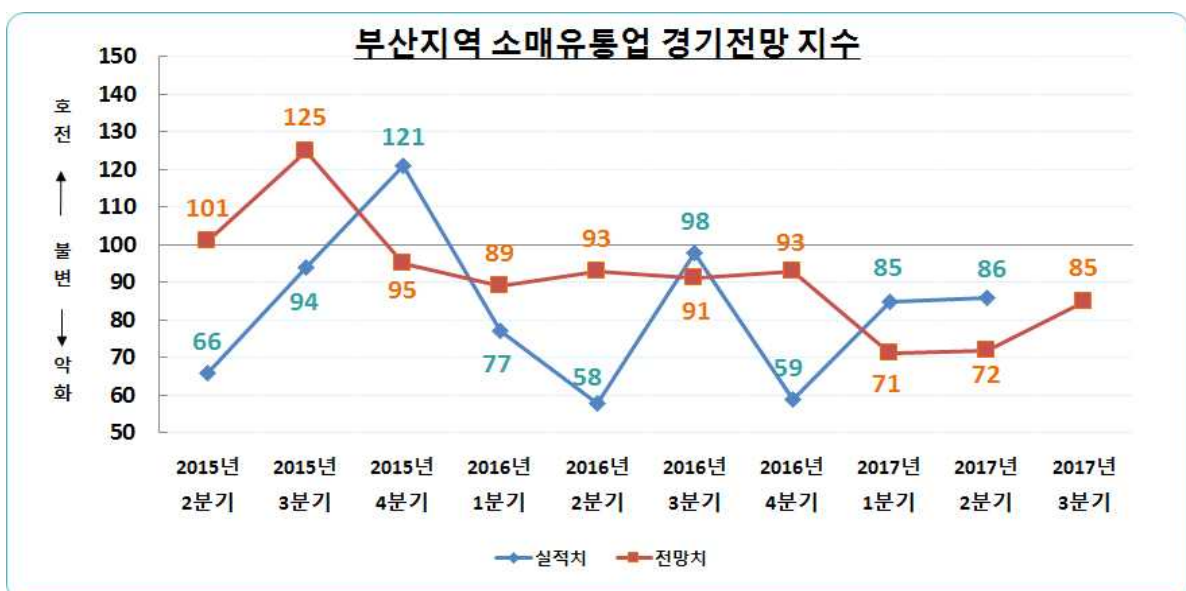
1. 경기전망

□ 2017년 3/4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85'

○ 2015년 4/4분기 '95'를 기록한 이래 8분기 연속 기준지수(100) 미만을 기록

- 3/4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지수(10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부진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지난 2/4분기 전망지수인 '72'와 비교했을 때 13포인트 상승한 '85'로 나타나 2분기 연속으로 상승해 부진세는 다소 완화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의 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백화점의 정기세일과 각종 바캉스 관련 행사 확대, 편의점 업계의 '1+1·2+1' 증정행사 등 매출확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새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시행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수출의 점진적 회복 등 긍정적 요인들이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소매유통업 경기의 부진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업종이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업황을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단체관광 규제 지속,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 가뭄으로 인한 신선식품 가격 상승, 장마와 무더위로 내방 고객 감소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어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지수(RBSI) 】



□ 2017년 2/4분기 실적지수는 '86' 로 나타남

○ 2017년 1/4분기 실적지수 '85' 대비 1포인트 소폭 증가로 보합세

- 2017년 2/4분기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실적지수는 지난 1/4분기 대비 1포인트 증가해 보합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망지수와 같이 2분기 연속으로 증가
- 실적지수가 기준지수(100)를 하회한 이유는 날씨가 풀리며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됨과 동시에 연휴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력 업종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인터넷 및 모바일로의 소비채널 변화와 외국인관광객 감소로 인해 내방고객이 감소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잡화와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의 고가의 소비 비중은 줄어든 반면 단순 식료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증가해 객단가가 줄면서 전체 매출이 부진하였기 때문

2. 업태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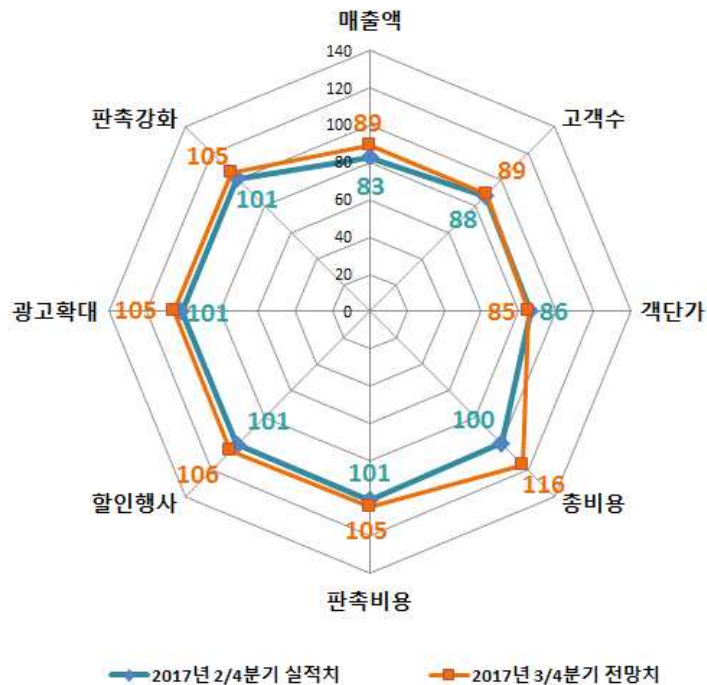
□ 업태별 전망을 살펴보면, 백화점(65), 대형할인마트(89), 슈퍼마켓(95), 그리고 편의점(92) 등 모든 업태에서 기준지수(100)를 하회

- **백화점(65)**은 여름 정기 세일의 돌입과 함께 각종 브랜드 테마전과 초대전을 통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확대, 매장 내 각종 '맛집' 및 편의시설을 입점하여 고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들의 구매채널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오프라인 구매 빈도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내방 고객 감소와 의류 등 주력 상품의 객단가가 낮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부진 전망
- **대형할인마트(89)**는 여름 휴가철과 나들이로 인해 음식료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명칭을 딴 주류 출시, 산지 직거래를 통한 가격 인하 등 매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부진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식품을 제외한 잡화, 생활용품 등 다른 분야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슈퍼마켓(95)**은 잡화 및 생활용품의 매출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외식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식자재 구매 빈도가 증가하여 SSM을 중심으로 육류와 계절 과일의 수요 증대로 신선식품 매출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
- **편의점(92)**은 '1+1', '2+1' 증정행사와 더불어 월별 상시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름철 내방 고객 증가와 수입맥주를 포함한 주류 수요 증가, 브랜드별 도시락과 즉석식품 등에서 PB상품 프로모션 확대, 브랜드 프리미엄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3. 경영지표 전망

- 3/4분기는 내방 고객수와 객단가 부진의 지속으로 매출 회복이 불투명 할 것으로 보이나 매출확대를 위한 업체별 자구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경영지표별로 살펴보면, 주요 지표인 매출액(89), 고객 수(89), 객단가(85) 등 주요 전망치는 기준지수(100)를 하회하고 있으나 전분기와 비교할 때 전망지수가 상승하면서 악화 수준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지난 2/4분기와 같이 잡화, 생활용품 등의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여름 휴가철을 중심으로 육류와 과일류 등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할인행사(106), 광고확대(105), 그리고 판촉강화(105) 등의 경영지표는 기준지수(1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매유통업계는 매출확대를 위한 자구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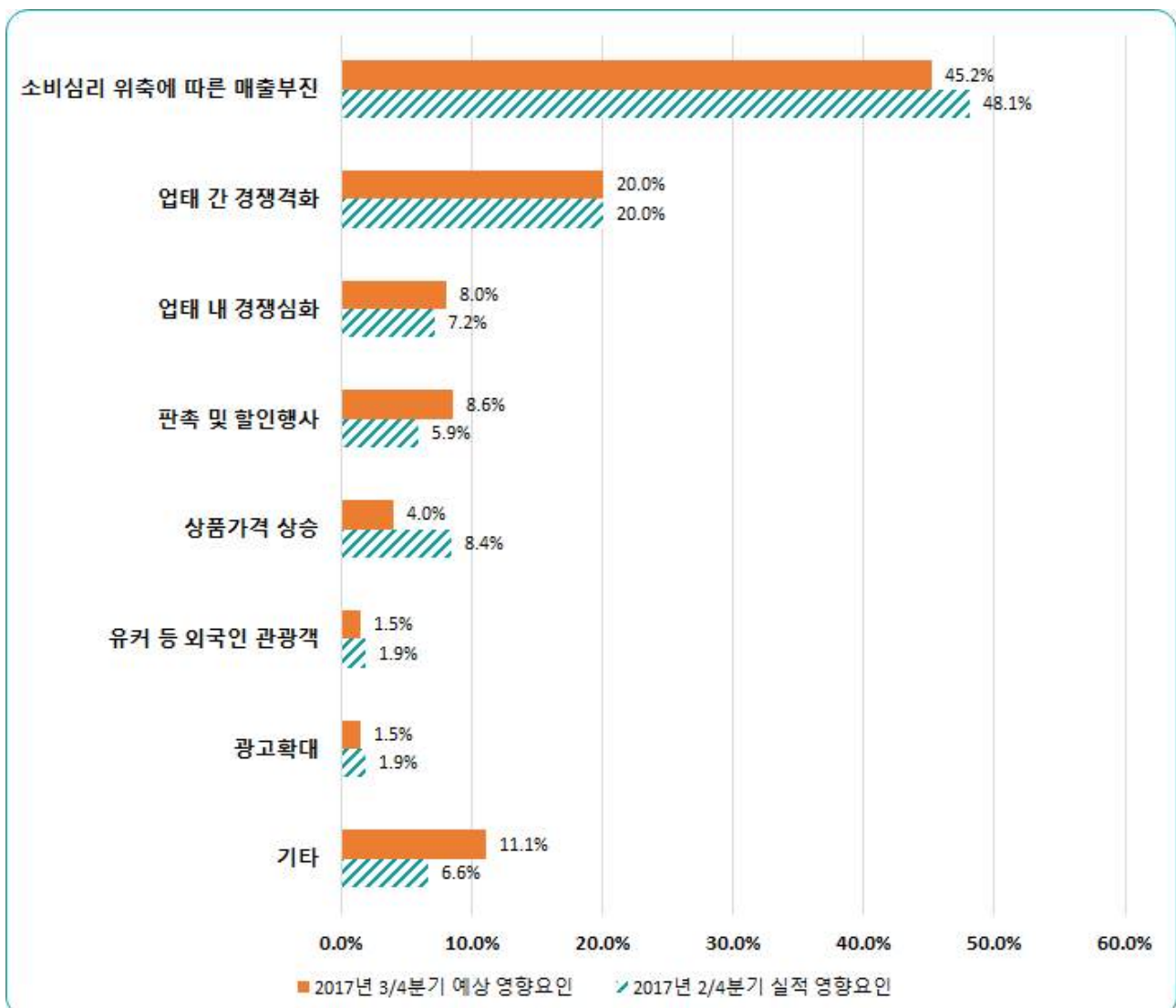
【 경영지표별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분포 】



4. 실적요인

- 3/4분기 예상되는 영향요인으로는 소비심리위축에 따른 매출부진이 4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 분기 대비 동일 항목의 비중 감소
- 지역의 주력 업종인 조선 및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이 업황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 지난 2/4분기 대비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의 비중은 다소 감소함.
- 3/4분기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은 소비심리위축에 따른 매출부진(45.2%)에 이어 업태 간 경쟁격화(20.0%), 업태 내 경쟁심화(8.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긍정적인 실적요인은 판촉 및 할인행사(8.6%), 광고확대(1.5%) 등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영향요인 】



5. 경영애로요인

□ 2017년 3/4분기 예상되는 경영애로요인으로는 수익성 하락(4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3/4분기 지역 소매유통업계는 매출 확대를 위해 할인행사 및 판촉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촉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지난 2/4분기 대비 자금사정 악화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비용의 증가가 자금 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됨.
- 수익성 하락(49.8%)에 이어, 자금사정 악화(13.6%), 인력부족 (12.1%), 유통관련 규제 강화 (12.1%), 정부정책의 비일관성(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 소매유통업 경영애로요인 】

